

# 北 김정은, 대표단 파견 공언 평창올림픽 참가 급물살 타나

IOC, 와일드카드 방안 고려 참가 도울 듯



북한 염대옥(19)-김주식(26) 조, 피겨스케이팅 페어

북한의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계속된 참가 독려에도 이렇다 할 반응이 없던 북한이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표단을 파견할 용의가 있다는 뜻을 새해 첫날 공식적으로 밝혔기 때문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1일 오전 조선중앙TV로 방송된 육성 신년사에서 '남조선에서 열리는 겨울철 올림픽 대회는 민족의 위상을 과시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며, 성과적 개최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이러한 견지에서 대표단 파견을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다. 이를 위해 북남 당국이 시급히 만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민족적 대사를 성대히 치르고 민족의 존엄과 기상을 내외에 떨치기 위해 동결상태인 북남관계를 개선해 뜻깊은 올해를 사변적 해로 빛내야 한다"고도 했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국제올

림픽위원회(IOC)는 북한의 참가를 독려하는 발언을 몇 차례 했다. 하지만 북한은 묵묵부답하다시피 했다. 그러다가 29일 개막하는 평창올림픽을 30일 앞두고 마침내 "겨울철 올림픽 대회"와 "대표단 파견"을 언급했다.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가 결정된 것은 물론 아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와 IOC,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조직위원회 등이 참가를 독려하고 있는 가운데 북측 최고권력자인 김정은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다"고 공언한 점이 주목된다.

한국 정부가 조직위는 평창올림픽의 5대 핵심목표 중 하나인 '평화올림픽의 완성'은 북한의 참가라는 논리를 강조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체육기자연맹 체육부장관과 만나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참가하기를 바란다. 북한의 참

가에 관해 국제올림픽위원회, 패럴림픽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 북한이 참가하더라도 확인하는 것은 거의 마지막 순간이 될 것이다. 그 때까지 계속 설득하고 권유할 계획이다. 정부도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IOC 또한 북한의 참가를 최대한 돕겠다는 자세였다.

북한은 출전권을 확보한 종목이 없다. 지역으로 확보한 피겨스케이팅 페어 참가권도 포기했다. 북한 페어의 염대옥(19)-김주식(26) 조가 지난해 9월 올림픽 추가 자격 대회인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쉐린저 시리즈 네벨혼 트로피에서 출전권을 따냈지만 ISU에 참가 의사를 통보하지 않아 차순위인 일본이 대신 출전권을 가져갔다.

ISU가 2017~2018 월드컵 1~4차 대회 성적에 따라 평창올림픽 출전권을 배분한 쇼트트랙에서도 북한이 지역으로 출전권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었지만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열린 월드컵 4차 대회에 아예 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 불거뚝이 됐다.

IOC는 국제연맹과 협의를 통해 북한에 와일드카드를 주는 방안까지 고려하면서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돕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우리는 이미 북한을 평창올림픽에 초청했다. 그들이 평창올림픽 출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남북 간 구체적인 논의와 IOC, 각 종목 국제연맹 간 협의 등 과제가 남아있다. 그러나 김정은이 전향적인 태도를 공식화한만큼 북한팀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위한 절차는 급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 “北 평창 참가 위해 한국정부·북한NOC와 긴밀 협조”

바흐 IOC 위원장, 신년사 “올림픽 희망의 상징돼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2018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환영의 뜻을 드러냈다.

바흐 IOC 위원장은 2일 (한국시간) 올림픽 관련 소식을 주로 다루는 '인사이드더게임스'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조직위원회, 한국 정부, 북한 국가올림픽위원회(NOC)와 긴밀한 협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북한 지도부의 평창올림픽 참가에 대한 발언을 열린 방식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전했다.

북한이 평창올림픽 참가와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김정은의 신년사가 처음이다. 김정은은 새해 첫날 조선중앙TV로 방송된 육성 신년사에서 '남조선에서 열리

는 겨울철 올림픽 대회는 민족의 위상을 과시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며, 성과적 개최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이러한 견지에서 대표단 파견을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다. 이를 위해 북남 당국이 시급히 만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직위와 우리 정부, IOC가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독려하고 있던 상황에서 김정은의 발언으로 인해 북한의 참가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회법 조직위원장은 곧바로 "북한의 대회 참가 논의를 환영한다. 정부 및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협의해 민간의 대책을 갖추겠다"며 "평창올림픽은 평화올림픽으로 이제 역대 최고, 최대의 겨울축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IOC는 지역으로 출전권 확보

가 힘든 북한에 와일드카드를 주는 방안을 고려해왔다. 이를 위해 각 종목 국제연맹과 본격적인 논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평창올림픽의 해가 시작됐다. 몇 주 후면 눈과 얼음 위에서 펼쳐지는 동계올림픽의 마법이 처음으로 한국에서 펼쳐질 것"이라며 "평창올림픽은 현대적인 한국을 전 세계에 알리고 열정을 전 세계로 연결할 것"이라고 전했다.

"우리는 한반도의 정치적 긴장 상황에 대해 알고 있다. IOC는 이미 2015년부터 고심하고, 각국 정부, NOC와 긴밀하게 협조했다"며 "하지만 평창올림픽이 의심스러운 상황에 놓인 적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바흐 위원장은 "올림픽은 언제나 모든 정파를 넘어야 한다. 올림픽은 희망과 평화의 상징이 돼야 한다"며 "이는 평창올림픽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며 우리는 계속 상황을 주시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 日 J리그 윤정환 감독, 일왕배 우승 이끌어

일본 프로축구 세레소 오사카의 윤정환 감독이 일왕컵을 거머쥐며 더블을 달성했다.

윤 감독이 이끄는 세레소 오사카는 1일 일본 사이타마 스타디움에서 열린 요코하마 F.마리노스와 2017 일왕배 결승에서 2-1 역전승을 거두며 정상에 올랐다.

세레소 오사카는 지난해 11월 J

리그컵에서 우승한데 이어 일왕배까지 잡으며 더블을 달성했다. 윤 감독은 J리그 복귀 첫 해 두 대회 우승이라는 값진 성과를 냈다.

지난 2011년 J리그 사단 도스에서 감독 생활을 시작한 윤 감독은 부인 첫 해에 1부리그 승격을 이끌며 지도력을 인정받았다.

2014년 12월 K리그 클래식 울산



류했다.

현대로 돌아와 지휘봉을 잡았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2016년 11월 사령탑에서 내려와 이듬해 1월 세레소 오사카에 합류했다.

## 포체티노 감독 “손흥민, 베컴보다 겸손...더 커 보여”

ESPN 인터뷰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선수”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토트넘 핫스퍼 감독이 손흥민을 치켜세웠다. 기량과 인품 모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2일 스포츠매체 ESPN 인터뷰에서 “손흥민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

한 선수”라고 평가했다.

2015~2016시즌 독일 분데스리가를 떠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으로 이적한 손흥민은 팀의 핵심 선수로 확실하게 자리를 내렸다. 지난 시즌 14골을 퍼

붓더니 이번 시즌에도 지금까지 9골을 터뜨렸다. 포체티노 감독은 “많은 골을 넣고 있고 훈련과 경기에서 일관성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무척 좋은 선수”라고 칭찬했다.

“손흥민 저평가론”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기복 없이 출중한 기량을 뽐내는 손흥민이지만 워낙 흐름이 좋은 해리 케인에 밀려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하고 있다.

포체티노 감독은 “리오넬 메시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옆에 있는 것과 같다. 매일 득점을 하는 케인의 옆에 있으면 포커스가 그에게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우리 팀 모두는 손흥민을 사랑한다. 그의 플레이뿐 아니라 인간적인 면모 또한 그렇다”고 말했다.

종종 손흥민이 아시아의 ‘베컴’이라고 불리는 것을 두고는 “베컴은 세계적인 아이콘이다. 손흥민이 그 정도가 되면 좋겠지만 그는 더욱 겸손하고 겸손하다. 그런 점들이 손흥민은 더욱 크게 만든다”고 추어올랐다.

## 전남드래곤즈, 프렌차이즈 스타 김영욱과 연장계약

2020년까지...풍부한 경험·노련미 멀티 플레이 소화



전남드래곤즈(사장 신승재)는 유스 출신인 김영욱 선수와 연장계약을 체결했다.

당초 계약기간이 1년 남아 있었지만, 전남의 프렌차이즈 스타로 팀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2020년까지 연장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풍부한 경험과 노련미를 김영욱 선수는 미드필더뿐만 아니라 수비와 공격까지 소화할 수 있는 멀티

플레이어로, 스피드와 체력, 투혼이 넘치는 플레이로 팀을 위해 헌신하는 선수이다.

광양제철고를 졸업 후 2010년 전남 입단하여 2017년까지 8시즌동안 177경기에 출전해 12골 15도움을 기록하고 있으며 전남의 원클럽맨으로 성장해가고 있다.

또한 팀의 중추적 선수로서 유상철 감독을 비롯한 코칭스텝과 선수 간의 중간 매개체 역할을 충실히

하고 소통과 솔선수범을 통해 선수들을 잘 이끌어 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상철 감독도 “전남이 자랑하는 유스에서 키워낸 대표적인 선수이다. 프렌차이즈 스타로서 전남의 상징성을 가진 전남의 스타로 키울 것이다. 또한 김영욱 선수가 팀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충분히 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믿음을 나타냈다.

김영욱 선수는 “새로 오신 유상철 감독님께서 팀에 잔류하길 원하셨다. 그리고 작년 시즌 개인적으로 나 팀한테도 힘든 시즌이었는데 끝까지 응원해주신 팬 분들께 너무 큰 감사함을 느꼈던 시즌이었다. 힘들 때 응원을 보내주시는 팬 분들께 제가 해줄 수 있는 보답이라고 생각했다.”며 “모두가 희생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저는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 번 해외진출이라는 목표를 이워서 나를 응원해주는 팬분들이랑 큰 행복을 함께 누리겠다. 어려운 결정을 도와주시는 중 고등학교 은사님인 김민완 선생님께서 감사를 표하고 싶다. 올 해에는 꼭 팬분들이 웃을 수 있는 한해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승호 전남동부체부본부장

## 프로야구 역대 가장 빠른 개막...최대 변수 예고

오는 3월 24일...아시안게임 영향

3월24일, 2018년 KBO리그 개막일이다.

지난 1982년 KBO리그 출범 이후 가장 빠른 날짜에 개막전이 열린다. 지난해까지 36번의 시즌 중 3월 개막은 9번밖에 없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빠른 개막일이 3월27일로 1982·2010년 두 차례 있었다. 2018년은 그보다 3일 더 앞당겨진 시점에 오픈한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때문에 개막이 예년보다 빨라졌다. 오는 8월17일부터 9월3일까지 아시안게임 기간 동안 KBO리그는 일시 중단된다. 지난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때도 9월15일부터 30일까지 보름 동안 휴식기를 가진 바 있다.

시즌 개막이 앞당겨진 만큼 각 팀들의 준비도 빨라질 전망이다. 2월 스프링캠프 시작부터 실전을 받게 하는 훈련일정이 불가피하다. 시범경기도 3월13일부터 21일까지



팀당 8경기만 치른다. 지난해 12경기에서 4경기 줄어든 만큼 실전연습 기회도 많지 않다.

이미 대부분 선수들은 비활동기간 개인 훈련을 통해 몸관리를 해왔다. 일부 팀에선 트레이닝 코치들을 통해 선수 개인별로 맞춤형 훈련 매뉴얼도 전달했다. 현장에서 “올해는 다른 때보다 더 비시즌 준비가 중요하다. 시즌 초반 레이스가 판도를 좌우할 것이다”고 바라

본다. 역대 리그의 흐름을 보면 4월까지 순위가 시즌 내내 가는 경우가 많았다. 2017년만 봐도 그렇다. 지난해 4월까지 8~10위였던 kt·한화·삼성엔 최종 순위도 8~10위를 나눠 밟았다. 4월 1위를 차지한 KIA가 결국 통합 우승을 차지했다. 개막이 빨라지는 2018년에는 이런 흐름이 짙어질 것이다.